

#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研究動向과 그 成果

송 휘 칠\*

##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儒敎와 Marx主義 |
| 2. 退溪學 研究의 國際化       | (4) 儒敎와 現代社會   |
| 3. 退溪學을 보는 西洋學者들의 視角 | 4. 앞으로의 課題     |
| (1) 退溪學의 獨創性 問題      | 5. 歐美學者들의 發表論文 |
| (2) 退溪學의 歷史性 問題      |                |

## 1. 머 리 말

西洋의 지식인들이 東洋思想, 특히 東北亞지역의 儒敎思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Matteo Ricci(1552~1610)를 비롯한 Jesuit 敎團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빈번히 내왕했던 16세기 후반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儒敎思想을 體系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哲學者 Leibniz (Gottfried William Von, 1646~1716)가 『中國의 自然宗教』(英文版 title : Discourse on the Natural Theology of the Chinese)<sup>1)</sup>를 저술한 1700년대초 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儒敎를 비롯한 中國의 사상과 文化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古代의 諸子百家書에서 清代末 康有爲의 『大同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中國의 古典들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출판하고 또 왕성한 研究活動을 展開해 왔다.

그러나 西洋 사람들은 韓國의 儒敎思想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經濟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1970年代까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西洋에 留學한 韓國學生들이 그들의 學位論文에서 우리나라의 儒敎思想을 간헐적으로 言及해 왔지만 대부분이 儒敎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sup>2)</sup>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과 교수

1) Leibniz의 이 著述은 당초 그의 프랑스인 친구 Nicholas De Remond에게 보낸 14,000여 단어의 긴 편지로 쓰여진 것으로, 그동안 <中國哲學에 관한 Leibniz의 편지>로 지칭되어 오다가 1977년 Hawaii大學에서 英文版으로 번역출판 했다. 그리고 이 번역작업에 관여했던 David Mungello씨는 같은 해에 *Leibniz and Neo-Confucianism : The Search for Accord*(University Press of Hawaii)라는 연구서를 내놓았는데, 그는 여기서 Leibniz의 哲學이 中國의 宋代 性理學에 영향을 받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2) 특히 기독교의 韓國傳來 및 受容과정을 다룬 神學系統의 論文과 西歐敎育制度의 受容과정을 다룬 敎育學系統의 論文에서 儒敎倫理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가치관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Frank J. Shulman의 『韓國・日本에 관한 博士學位論文 解題』<sup>3)</sup>에 의하면, 西洋에 韓國의 儒敎思想을 體系의으로 소개한 최초의 저서는 아마도 Youn Eul-Sou라는 분이 1939년 파리에서 불어로 출판한 『韓國의 儒敎』(Le Confucianisme en Corée)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뒤인 1961년에 Choi Min-hong씨가 독일 München大學에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한 『韓國에 있어서의 儒敎倫理의 영향』(Der Einfluss der Confuzianischen Ethik in Korea)이 戰後의 西洋에서 韓國儒敎를 主題로 다룬 첫번째의 本格的인 論文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1972년에는 Yu Chin-Sei씨가 美國 Temple大學에서 栗谷에 관한 論文 (title : The Quest for Self in the Philosophy of Yulgok) 으로 宗敎학 博士學位를 받고, 1976년에는 Zaborowski (Hans-Jurgen)라는 소련인이 牧隱 李穡에 관한 論文 (title : Der Gelehrte und Staatsmann Mogun Yi Saek(1328~1396) : Studien zu Seiner Biographie)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뒤이어 1977년에는 Michael C. Kalton이 Harvard大學에서 朝鮮朝 性理學의 世界觀과 價値觀에 관한 論文(title : The Neo-Confucian World View and Value System of Yi Dynasty Korea)으로, 그리고 Seoh Munsang씨가 Washington大學에서 安靖복에 관한 論文(title : The Principlist Tradition of Yi Confucianism and the Case of An Chong-bok)으로 각각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한편 1978년 스위스에서는 Martina Deuchler교수가 『朝鮮 初期 한국의 儒敎와 社會構造』(Confucianism and the Social Structure of Early Yi Dynasty Korea)라는 저서를 출판하는 등<sup>4)</sup> 1970년대부터 歐美諸國에서 韓國 儒敎에 관한 관심이 前例없이 高調되기 시작한다.

이들 중에서 특히 Kalton (現在는 Wichita 大學敎授)은 뒤에 (1988년) 퇴계의 『聖學十圖』를 英文으로 번역출판하여 (title : To Become A Sage ;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退溪書를 西洋에 최초로 소개한 공로로 <退溪學術賞>을 받게 된다.

## 2. 退溪學研究의 國際化

이 무렵 國內에서는 그동안의 研究성과를 토대로 <退溪學研究의 國際化>를 시도하게 되며, 1976년에는 慶北大學에서 韓國・臺灣・日本の 三國學者들이 모여 그 첫번째 國際學術會議을 갖는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7년에는 日本에서 제2차 大會가 열리고 美國의 De Bary교수 (Columbia大學)가 參加하여 基조연설을 하게 된다. 다음의 圖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78년에 개최된 제3차 大會때 부터는 西洋學者들이 대거 參加하게 되고, 1990년 8월

3) Frank J. Shulman, compiled and edited, *Japan and Korea :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Dissertations in Western Language, 1877~1969*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參照. Shulman은 다시 1976년에 *Doctoral Dissertations on Japan and Korea, 1964~1974* (Ann Arbor :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를 내놓았다.

4) 여기까지의 information은 주로 Shulman의 前掲書에서 찾아낸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제12차 大會때까지 退溪學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西洋學者들의 論文이 총 72편이나 되며 退溪學을 主題로 다룬 論文만도 44편에 이른다.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開催現況〉

| 차수 | 년도   | 개최지 | 참가국명                                          | 참가국수 | 발표논문/기조연설 | 구미학자발표논문 | 구미학자퇴계학논문 |
|----|------|-----|-----------------------------------------------|------|-----------|----------|-----------|
| 1  | 1976 | 한국  | 한국, 대만, 일본                                    | 3    | 4/3       | —        | —         |
| 2  | 1977 | 일본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 4    | 14/4      | /1       | —         |
| 3  | 1978 | 미국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 6    | 25/4      | 6/1      | 5/1       |
| 4  | 1979 | 대만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 4    | 25/4      | —        | —         |
| 5  | 1981 | 한국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홀랜드                           | 5    | 28/3      | 4        | 4         |
| 6  | 1983 | 미국  | 한국, 대만, 일본, 소련, 스위스                           | 6    | 19        | 6        | 6         |
| 7  | 1984 | 독일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폴란드                   | 7    | 21        | 7        | 7         |
| 8  | 1985 | 일본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폴란드, 이태리, 호주, 체코, 폴란드 | 11   | 49        | 12       | 11        |
| 9  | 1987 | 홍콩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독일, 호주, 홍콩                    | 7    | 42        | 3        | 1         |
| 10 | 1988 | 한국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소련, 유고, 호주, 폴란드       | 10   | 51        | 12       | 7         |
| 11 | 1989 | 중국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소련, 홍콩                    | 7    | 51        | 5        | —         |
| 12 | 1990 | 소련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미국, 소련                        | 6    | 47        | 17       | 3         |
| 계  |      |     | 총 15개국(동양 5, 구미 10개국)                         |      | 376/18    | 72/2     | 44/1      |

※ 1987年 Hongkong에서 열린 제9차 大會때는 <東北亞에서의 新儒學의 發展>이라는 主題下에 多樣한 論文들이 발표되었고, 1990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2차 大會때도 <現代세계와 儒學 그리고 退溪學>이라는 主題下에 퇴계학 보다는 <現代세계와 儒學>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 Hongkong은 英國領이나 지역적으로 東洋에 속하고 또 大部分의 학자들이 中國人들이기 때문에 歐美學者로 分類하지 않았다.

이들 西洋학자들을 국가별로 分類해 보면, 미국 16명, 소련 13명, 독일 6명, 홀랜드,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랄리아가 각각 2명,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체코, 폴란드 등이 각각 1명씩이며, 이들중 退溪學 國際學術會議에서 2회이상 論文을 發表한 학자가 11명, 3회이상 발표한 學者도 5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 國際學術會議에 사회자 혹은 토론자로 참가한

학자들과 일반 참관인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이다.

이 國際學術會議에서 論文을 발표한 西洋學者들 중에는 7명의 韓國系學者(미국의 김옥숙, 강호석, 노영찬, 박성배, 고승균, 독일의 구익성, 소련의 미하일 박씨 등)와 5명의 中國系學者(미국의 Wing-tsit Chan, Wei-ming Tu, Charles Fu, Chung-ying Cheng, 호주의 Ts'un-yan Liu씨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계학자들 중에 미국의 김옥숙 교수는 退溪性理學을 正面으로 다룬 論文을 3편이나 발표하고 있으며, 독일의 구익성 교수도 퇴계의 文學에 관한 論文을 3편 발표하고 있다. 한편 강호석(3편), 노영찬(2편) 교수는 退溪의 鄉約을 검토하고 退溪와 日本의 山崎闇齋를 比較하는 등 退溪學의 特徵을 부각시키는 勞力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퇴계학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中國系學者들 중에 Wing-tsit Chan(陳榮捷) 교수는 中國哲學 연구의 태두로서 그가 저술·번역·편집한 단행본만도 십수권에 이르는 학자이며, 50代 초반의 Wei-ming Tu(杜維明) 교수도 이미 大家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學者로서, 이들이 退溪學 연구에 가담하고 있다는 事實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발표한 退溪學 관계 論文은 Wing-tsit Chan교수가 2편, Wei-ming Tu교수가 4편, Charles Fu(溥偉勳) 교수가 2편, Chung-ying Cheng(成中英) 교수가 1편, 그리고 호주의 Ts'un-yan Liu(柳存仁)교수가 4편인데, 이들은 朱子學에 정통한 學者들이라 계속 우수한 論文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된 論文들을 中心으로 本人이 수집한 68件의 관련자료(別紙 論文目錄 참조)를 내용별로 分類해 보면, 理氣心性論등 退溪의 性理學에 관한 것이 19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退溪의 文學에 관한 것이 5편, 退溪學의 現代적 意義 및 그 계승 문제를 다룬것이 4편, 退溪學의 歷史性 및 그 연구방법의 문제를 다룬것이 4편, 儒敎倫理와 經濟的인 발전문제를 관련지은 것이 4편, 退溪와 書院 그리고 향약등 敎育문제를 다룬것이 3편, 退溪學과 日本儒學의 관계 혹은 비교고찰이 3편, 유교와 Marx주의 혹은 러시아 사회주의와 관련지어 論한 것이 4편, 退溪의 異端 비판에 관한 것이 2편, 韓國儒學史에서의 退溪의 위치에 관한 것이 2편, 退溪와 栗谷의 관계 혹은 양자의 비교고찰이 2편, 그리고 나머지는 유럽에서의 退溪學 이해, 미국에서의 退溪學 이해, 미국에서의 退溪學 연구현황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論文들은 學術大會가 끝난뒤 약 1/3 정도가 서울의 退溪學研究院에서 발행하는 『退溪學報』(季刊)와 UNESCO에서 발행하는 <Korea Journal>에 번역문 혹은 原文 그대로 掲載되어 왔으며, 나머지 論文들도 일부는 De Bary교수가 편집한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및 東洋學 관계의 각종 Journal에 修正 보완하여 실고 있다.

특히 De Bary교수가 편집한 위의 책은 정제식, 이성무, 윤사순 교수등 국내 학자들의 論

文까지 포함하여 총 16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책은 韓國儒敎에 관한 論文集으로는 영어권에서 출판된 최초의 單行本이다. 이 책에는 退溪學을 主題로 다룬 논문이 4편 수록되어 있고, 栗谷에 관한 Julia Ching의 논문(別紙 目錄 #65)과 Sakai Tadao의 論文(title: Yi Yulgok and Community Pact), 그리고 조선전기 性理學의 異端배척과정을 다룬 Martina Deuchler의 論文(別紙 目錄 #66)도 직접 간접으로 퇴계학과 관련되는 論文들이다.

그러나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연구성과 중 가장 特記할만한 것은 역시 Michael Kalton이 번역한 英文版 <聖學十圖> (To Become A Sage: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e)가 될 것이다. 이 번역본은 讀者들의 理解를 돕기 위해 풍부한 주석을 붙이고 있으며, 序論부분(약 18페이지)에 宋代 性理學과 朝鮮초기 性理學의 展開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李退溪의 學問에 관한 有益한 解說을 붙이고 있어, 앞으로 歐美諸國에서 韓國儒學과 退溪學에 관한 좋은 案內書가 될 것이다.

### 3. 退溪學을 보는 西洋學者들의 視角

이상의 論文들을 통하여 西洋學者들은 退溪學에서 무엇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提起하고 있는 論點들(arguments)은 어떤 것인지, 중요한 몇가지만 집약해 보기로 한다.

#### (1) 退溪學의 獨創性 問題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연구성과 中 中國系 學者들의 論文이 대부분 退溪學의 核心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퇴계의 理氣心性論, 天人論 등을 분석하면서 朱子學과 退溪學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즉 朱子學에 대한 退溪의 獨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退溪를 朱子의 단순한 계승자 혹은 추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朱子學을 재해석한 創造적인 계승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別紙 目錄 #6 Chan, #8 Tu, #24 Cheng, #27 Fu, #32 Liu), 어떤 점이 창조적인 再解析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Wing-tist Chan 교수는 退溪의 「朱子行狀輯注」와 「朱子書節要」, 그리고 「理學通錄」을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退溪의 朱子해석에 나타난 가장 特徵적인 요소는 道德 문제에 관한 그의 깊은 관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道問學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朱子學을 尊德性 쪽으로 강화한 것이 退溪學의 창조적인 特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Charles Fu 교수는, 退溪가 道德의 主體性을 重視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가 孟子의 心性論에 傾倒된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朱子學을 넘어서서(went beyond Chu Hsi) 자신이 批判했던 陸王心學의 方向으로 기울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朱子의 性卽理說과 陸王의 心卽理說을 변증법적으로 統合하게 되었다는데 그 獨創性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27). 한편 Chung-ying Cheng 교수도, 退溪가 朱子學과 陸王學을 결합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가 孟子의 心性論의 관점에서 朱子學을 재해석 했다고 보는 점(#24)에서는 Fu 교수와 같은 見解를 갖고 있다.

그러나 Wei-ming Tu 교수는, 退溪가 陸參山과 王陽明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批判 立場의 立場을 취했기 때문에 陸王學의 올바른 이해와 그 전파에 큰 방해자가 되었다고 前提하고, 退溪는 朱子의 이같은 存在論의 理에 動的인 기능을 부여하여 力動的인 心性論을 展開했다는 점에 그 獨創性이 있다고 主張한다(#8). 아무튼 退溪學의 特徵 혹은 獨創性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치밀하게 검토하고 論證해야 할 退溪學 연구의 가장 重要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2) 退溪學의 歷史性 問題

그러나 退溪學을 超時間的·超空間的인 哲學體系로만 理解할 것이 아니라, 退溪學을 產出한 16세기 朝鮮社會의 歷史 環境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勞力이 필요하다는(#9) John Goulde 교수의 主張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退溪學이 中國의 朱子學을 원형 그대로 이식한 것이 아닌, 韓國에서 태어난 韓國人 李退溪에 依해 受容·發展된 것이기 때문에 退溪學의 特徵 내지는 그 우수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性理學의 보편성만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Ingeborg Goethel 교수도 같은 관점에서 退溪가 자신이 살았던 時代的 狀況과 사회 環境,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詩로 표현한 것이 많으면서, 2,000수가 넘는 그의 漢詩도 같이 연구하여 退溪學의 歷史性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34).

이외에도 상당수의 西洋學者들이 退溪性理學의 哲學的인 意味보다는 그 哲學의 歷史的인 意味와 適實性을 규명하고, 또 역사적인 人物로서의 李退溪를 理解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退溪에 관한 이들의 研究成果를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기본지식부터 결여되어 있는 등 어쩌면 1/2 이상이 水準未達의 試論的인 論文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退溪學研究의 國際化를 위하여 이들의 관점과 問題意識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儒敎와 Marx主義

Helga Picht 교수는 「韓國哲學史에 있어서 李退溪의 位置」라는 論文(#23)에서 唯物史觀에 立脚한 北韓學者들의 退溪像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 論文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그들이 退溪를 「反動分者」로 규정한다든가, 退溪의 鄉約도 支配階級의 利益을 보호하고 人民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事實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다른 共產主義 국가의 學者들은 이미 80年代초부터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서히 儒敎文化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1950年代 이래 30여년간 소련의 韓國問題 전문가로 활약해온 官學者 미하일 박씨<sup>5)</sup>와 Burov, 그리고 Oushkov교수 등을 들 수 있다. Marx-Lenin主義 觀點에서 본다면 이들도 北韓學者들처럼 李退溪를 「反動分者」로 규정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退溪學 國際學術會議에 參加하여 「韓國의 儒敎傳統과 退溪」(#11 M, Pak), 「儒敎와 Marxism」(#52 Burov), 「公人으로서의 李退溪」(#55 Oushkov) 등 관심을 모우는 論文들을 발표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Burov교수는 儒敎를 더이상 보수주의 혹은 反動主義 이데올로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人本主義의인 思想體系로 理解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Marxism도 그 出發에 있어서는 儒敎와 같이 人本主義에 바탕을 둔 思想體系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理想이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儒敎 연구가 Marx主義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9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2차 大會에는 소련학자들이 대거 參加하여 10여편의 論文을 발표하고 있는데, 「新思考의 觀點에서 본 儒敎倫理」(#56), 「儒敎의 傳統과 韓國의 開化」(#57), 「儒敎의 人本主義」(#58), 「儒敎의 조화기능」(#61), 「儒敎와 러시아 社會」(#63), 「러시아 文化속의 孔子」(#64)등 한결같이 儒敎倫理가 현대 蘇聯社會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經濟的인 발전도 유교적인 傳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 (4) 儒敎와 現代社會

Michael Kalton 교수는 儒敎가 非生産的·非合理的인 思想體系라는 종래의 부정적인 觀點을 비판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서양의 合理主義보다 儒敎가 더 生産的이고 合理的(理에 合致되는 行동을 要求하기 때문에) 이라고 主張한다(#38, 40). 그리고 그는, 利己的·分散的인 合理主義와 기계적인 테크닉에 의존하는 美國經濟는 그 限界點에 이르고 있으나, 相互 조화를 추구하는 道德的 合理主義와 人間관리의 원칙을 重視하는 儒敎國家의 經濟, 卽 日本, 臺灣, 韓國, 싱가포르의 經濟는 계속 高度成長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한다(#38).

Kalton 교수의 이같은 觀點은 80年代 초부터 이른바 아시아의 ‘네마리 龍’이라는 이름으로 빈번히提起된 「儒敎資本主義論」과 그 脈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儒敎資本主義論이 지금으로서는 說得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등 후발대로 추적해오

5) 이들 중 특히 미하일 박씨는 우리나라의 歷史를 Marx主義的인 社會經濟的 觀點에 논의하는 등, 美國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에서 1973년에 출판한 *Soviet Works on Korea, 1945~1970*에 약 20여 편의 論文에 실려있다. 同刊의 目錄 #146~8, 164~8, 184, 196, 241, 242, 292, 477, 644, 781, 1035, 1114 등 參照.

고 있는 佛敎國家도 멀지않아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다시 「佛敎資本主義論」을 내세워야 하는 어려운 問題에 부딪칠 것이다.

이와같은 理論보다는 人本主義, 自己修養, 共同體意識, 寬容의 德, 調和의 精神, 義務意識 등 유교의 핵심적인 德目을 오늘의 社會에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Waren Smith (#2), R. E. Little (#41), Ts'un-Yan Liu (#36), Oaksook Kim (#54), 그리고 Myalle (#58)를 비롯한 소련학자들의 主張이 오히려 더 절실하고 現實的인 課題라고 생각한다.

## 5. 앞으로의 課題

지금까지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연구동향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얼른 보기에는 西洋學者들이 발표한 退溪學 관계 論文이 44편이나 되고, 또 退溪學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論文까지 합치면 70편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검토한 論文들은 대부분 退溪學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것들이고 또 상당수가 4~5페이지 정도의 試論의인 論文에 불과한 것이라 그 숫자만을 가지고 만족해선 안될 것이다.

통상, 西洋에서의 東洋學研究, 특히 美國에서의 東洋學 연구를 이야기 할때, 中國研究의 제1세대는 1800년대 말엽부터 中國에 파견된 선교사의 아들로 中國에서 태어나 中國에서 자라면서 中國語를 배운 세대이고, 日本研究의 제1세대는 2次大戰 당시에 日本語 통역장교(Language Officer)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本國에 돌아가 전문가로 成長했으며, 韓國研究의 제1세대는 6.25동란때 韓國戰에 參加했던 장교들과 60년대에 平和봉사단원으로 韓國을 다녀간 사람들이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中國·日本을 연구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각 수백명에 이르고 있지만, 韓國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수십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것도 韓國系學者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미국인으로 한국어를 충분히 구사하면서 韓國에 관한 論文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는 아마 10여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韓國思想 연구분야는 지금까지 中國思想 전문가들이 Side-Work 으로 참여하고, Wagner, Kalton 등 소수의 미국인 학자들과 한국계 學者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情報로는 韓國思想史를 총괄하는 入門書 하나도 아직 出版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本人은 앞에서 Michael Kalton 교수의 英文版 <聖學十圖>가 조선시대 儒學思想에 관한 案内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經濟的으로는 先進國의 대열에 進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歷史, 文化, 思想 등 정신적인 遺産도 서서히 國際社會에 소개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며, 이런 意味에서 지금까지 개최된 退溪學 國際學術大會는 그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西洋사람들이 한국의 歷史, 文化, 思想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록 우리나라 古典들을 하나하나 번역하여 英文으로 出版 보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退溪學 연구에 있어서도 西洋學 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退溪全古>의 英譯作業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운 研究人力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韓國學者 奇高峯을 中國語 發音 Ki Kao-feng으로 表記하고 退溪學에 나오는 韓國의인 獨特한 用語까지 中國式으로 表記하는 모순이 쉽게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 6. 歐美學者들의 發表論文

지금까지 논의한 西洋學者들의 退溪學 관계 論文들을 資料로 집약하는 뜻에서 발표된 年度 순으로 수록해 보기로 한다. 이 目錄에는 退溪學 國際學術會議에서 發表한 論文이라도 退溪學 혹은 韓國儒學과 관계없는 論文들은 제외시켰으나, 「儒敎와 Marxism」, 「儒敎와 現代社會」등 우리들이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論文들은 그대로 수록했다.

그리고 論文題目들은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제목을 번역하여 수록한 것도 있고, 「退溪學報」 등에 실린 새로운 제목을 수록한 것도 있어, 英文 title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 #1. 「新儒學 연구의 現在와 未來」(Neo-Confucian Studies, Present and Future), Wm. Theodore De Bary (美國), 1977년 제2차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기조연설, 『退溪學報』 제14집 (서울, 퇴계학연구원, 1977)에 收錄.
- #2. 「新儒學과 退溪思想의 現代의 意義」(Neo-Confucianism and Toegye Today), Waren. W. Smith (美國), 78年 第3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제19집 (1978) 및 <Korea journal > No.18~19 (Seoul, UNESCO, 1978)에 收錄.
- #3. 「朱子の ‘易學啓蒙’과 李退溪의 性理學」(Chu Hsi's *I-hsueh Ch'imeng* and the Neo-Confucianism of Yi Toegye), Timothy S. Phelan (美國), 78年 第3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19집(1978) 및 <Korea Journal> No. 18~19 (1978) 에서 收錄
- #4. 「李退溪의 心性論」(Yi Tolgye's Perception of Human Nature: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Four-Seven Debate in Korean Neo-Confucianism), Wei-ming Tu (美國), 78年 第3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19집 (1978) 및 De Bary교수의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에 수정보완하여 收錄.
- #5. 「田園詩人 李退溪」(A Pastoral Poet Yi Toegye), James Hoyet (美國), 78年 第3次 大會에

- 서 發表, 『退溪學報』 제19집 (1978) 에 收錄.
- #6. 「退溪의 朱子理解」(How Toegye Uneustood Chu Hsi), Wing-tsit Chan (美國), 81年 第5次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32집 (1981) 및 De Bary 교수의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1985)에 收錄.
- #7. 「李退溪와 日本」(Yi Toegye and Japan), W. J. Boot (홀랜드), 81年 第5次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31집 (1981) 에 收錄.
- #8. 「朱子學에 대한 退溪의 獨創的 해석」(Toegye's Creative Interpretation of Chu Hsi's Philosophy of Principle), Wei-ming Tu (美國), 81年 第5次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35집 (1982)에 收錄.
- #9. 「退溪學이란 超歷史的인 學問인가?」(Toegye Studies : Historical or Para-historical Discipline), John I. Goulde (美國), 81年 第5次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35집 (1982)에 收錄.
- #10. 「新儒學의 主流로서의 退溪의 位置」(The Position of Toegye as the Mainstream of Neo-Confucianism), Wing-tsit Chan (美國), 81年 第5次大會에서 發表.
- #11. 「韓國에서의 儒敎傳統과 退溪」(The Confucian Tradition in Korea and Toegye), M. N. Pak (소련), 83年 第6次大會에서 發表.
- #12. 「李退溪의 王陽明 批判」(Yi Toegye's Rejection of Wang Yang-ming), Martina Deuchler (스위스), 83年 第6次大會에서 發表, "Reject the False and Uphold the Straight : Attitudes Toward Heterodox Thought in Early Yi Korea" 라는 제목으로 수정보완하여 De Bary교수의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에 收錄.
- #13. 「李退溪의 知的 自我定準에 관한 한 考察」(An Inquiry into Toegye's Definition of Intellectual Self), Wei-ming Tu (美國), 83年 第6次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40집 (1983)에 收錄.
- #14. 「退溪의 聖學十圖」(Toegye's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Michael C. Kalton (美國), 83年 第6次大會에서 發表, 그의 <聖學十圖> 번역본 *To Become a Sage ;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에 序論의 한 part로 수정보완하여 收錄.
- #15 「退溪 哲學思想의 主題」(The Main Theme of Taegye's Philosophical Thought), Thimothy S. Phelan (美國), 83年 第6次大會에서 發表.
- #16 「美國에 있어서의 退溪學연구의 展望」(The Prospect of the Studies of Yi Toegye in the

- United States), Edward W. Wagner (美國), 83年 退溪學 國際學術講演會 (서울)에서의 강연요지, 『退溪學報』 제40집 (1983)에 收錄.
- #17. 「退溪學的 유럽에로의 전파」(The Transmission of Toegye Studies to Europe), Edward W. Wagner (美國),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 #18. 「李退溪의 四端七情論」(Toegye's Thesis on the Four Beginnings and Seven Feelings), Charles W. Fu (美國),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 #19. 「退溪의 天人觀 一解」(Toegye's Anthropocosmic Vision : An Interpretation), Wei-ming Tu (美國),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Korea Journal> No. 25~7 (1985)에 收錄.
- #20. 「中國과 日本의 儒敎靜坐와 비교해 본 李退溪 靜坐法의 座標」(英文 title 不明), Thomas H. Kang (美國),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44집 (1984)에 收錄.
- #21. 「退溪思想의 宗教的 性格」(英文 title 不明), Sung-bae Park (美國),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44집 (1984)에 收錄.
- #22. 「退溪와의 만남—回顧」(英文 title 不明), Hans Stumpfelt (독일), 84年 第7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4집 (1944)에 收錄.
- #23. 「韓國哲學史에 있어서 李退溪의 位置」(The Position of Yi Toegye in the History of Korean Philosophy), Helga Picht (독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제8차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논문집, <李退溪의 哲學의 歷史的 位置> (東京: 東洋書院, 1986)에 收錄.
- #24. 「孟子와 朱子에 비추어 본 李退溪 四七論의 새로운 해석」(A New Interpretation of Toegye's Four-Seven Theory in Light of Mencius and Chu Hsi), Chung-Ying Cheng (美國),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논문집 및 『退溪學報』 제52집 (1986)에 收錄.
- #25. 「退溪와 그의 弟子들과의 관계에 관한 一分析」(An Analyl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gye and His Disciples), Edward W. Wagner (美國),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26. 「理學派의 觀點에서 韓國의 新儒敎 道德을 創始한 李退溪」(Toegye, the Forger of Korean Neo-Confucian Orthodoz Morality in the Context of Neo-Confucianism), Paolo Santangelo (이태리),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27. 「朱子繼承者로서 退溪의 哲學的 獨創性」(Philosophical Originality of Toegye as the Chu Hsi's Successor), Charles W. Fu (美國),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 및 『退溪學報』 제49집 (1986)에 收錄.

- #28. 「恒時的인 人間愛：四七論爭에 관한 一考察」(Humanity for All Seasons : A Reflection on Four-Seven Debate), Oaksook Kim (美國),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 및 『退溪學報』 제49집 (1986)에 收錄.
- #29. 「李滉의 文學觀」(Yi Hwang's Views on Literature), Halina Ogareck-Czoj (폴란드),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30. 「李退溪의 自然詩」(The Natural Poems of Yi Toegye), I. S. Kuh (독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31. 「李退溪와 崎門學派의 靜坐法에 관한 一考察」(An Inquiry into the Seiza Experience Between the Toegye and the Yamazaki School), Thomas H. Kang(美國),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32. 「退溪 李滉의 ‘宋季元明理學通錄’에 나타난 朱子門人들」(The Disciples of Chu Hsi as seen in Yi Hwang's *Songye Wonmyong Yihak Tongrok*), Ts'un-yan Liu (호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 및 『退溪學報』 제8집 (1986)에 收錄.
- #33. 「李退溪의 著述에 나타난 疾病과 醫藥關係 記事」(Illness and Medicine in the Works of Yi Toegye), Erhard Rosner (독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34. 「退溪學의 史的分類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點」(Some Questions of Historic Classification of Toegyehak), Ingeborg Göethel (독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上記 論文集에 收錄.
- #35. 「退溪의 知識論과 유럽 학자들의 理論의 유사점」(A European Analogy to Toegye's Teaching Concerning Knowledge), Gerhart Schmidt (독일), 86年 第8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50집 (1986)에 收錄.
- #36. 「退溪와 現代인의 生活」(Yi Toegye and Modern Life), Ts'un-Yan Liu (호주), 87年 第9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55집 (1987)에 收錄.
- #37. 「退溪의 詩的 見解에 관하여」(On the Poetical View of Yi Toegye), I. S. Kuh (독일), 87年 第9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58·59합집 (1988)에 收錄.
- #38. 「西洋社會와 儒敎의 效用性」(Western Society and the Confucian Advantage), Michael C. Kalton (美國), 87年 第9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55집 (1987)에 收錄.
- #39. 「栗谷의 退溪 理解－牛溪 成暉에게 보낸 栗谷의 書翰을 中心으로」(How Yulgok Understood Toegye—as Seen Through Yulgok's Letters to Ugye), Sung-bae Park (美國), 87年 第9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55집 (1987)에 收錄.

- #40 「美國人은 退溪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What an American has to Learn from Toegye-hak), Michael C. Kalton(美國), 87年 11月 제2회 <退溪學術賞> 受賞 記念講演 요지, 『退溪學報』 제57집 (1988)에 收錄.
- #41. 「儒學者の 21세기」(A Confucian 21st Century), R. Little (호주),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42. 「自省錄과 退溪의 哲學」(Jasongrok and Toegye's Philosophy), Oaksook Kim (美國),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43. 「退溪의 教育哲學과 미국에서의 人文教育」(Toegye's Educational Philosophy and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U.S.), S. K. Koh (美國), 88年 第6次 大會에서 發表.
- #44. 「슬로베니아에 있어서 新儒學思想의 實際」(On the Actuality of Neo-Confucian Thought in Slovenia), M. Milcinski (유고),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0집 (1988)에 收錄.
- #45. 「自省錄을 보면서 - 學問에 대한 退溪 李滉의 생각」(Toegye Yi Hwang's Thought on the Confucian Studies as seen in the *Jasongrok*), Halina Ogareck-Czozj (폴란드),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46. 「退溪 ‘敬’ 사상의 宗教的 重要性」(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Toegye's Idea of *Kyong*), Young-Chan Ro (美國),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47. 「最初の 韓國關係 유럽어 出版物에 나타난 儒敎와 退溪學 敍述」(On the Description of Confucianism and the Doctrine of Yi Hwang in the 1st Eurolinguistic Publication about Korea), Ingeborg Goethel (독일),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0집 (1988)에 收錄.
- #48. 「退溪의 非哲學的인 詩에 묘사된 靈의 世界」(On the Spiritual Realm Explored in Toegye's Non-Philosophical Poems), Ts'un-yan Liu (호주),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49. 「新儒學의 歷史的 盛衰」(Historical Fortunes of Neo-Confucianism), Vladilen Burov (소련),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0집 (1988)에 收錄.
- #50. 「獨逸 大學生の 儒學觀」(German Students on Confucianism), I. S. Kuh (독일),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51. 「退溪의 村落共同體 鄉約과 미국의 都市共同體 조직법의 比較」(Comparison of Toegye's Rural Community Pact and America's Approach to Urban Community Organiza-

- tion), Thomas H. Kang and Young-chan Ro.(美國), 88年 第10次 大會에서 發表.
- #52. 「儒敎와 마르크스主義」(Confucianism and Marxism), O. G. Burov (소련), 89年 第11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3・64합집 (1989)에 收錄.
- #53. 「新儒學의 歷史的 趨勢—平和 및 社會의 進歩와 관련하여」(The Historical Trends of Neo-Confucianism : Problems of Peace and Social Progress), Ingeborg Goethel (독일), 89年 第11次 大會에서 發表.
- #54. 「退溪學에 있어서의 道德과 社會正義」(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Toegye's Studies), Oaksook Kim (美國),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55. 「官吏와 政治家로서의 李滉」(Yi Hwang as a Government Officer and Politician), A.M. Oushkov (蘇聯),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56. 「新思考의 觀點에서 본 儒敎道德과 行爲의 原理」(Confucian Marality and the Principle of Action in Terms of New Way of Thinking), V. N. Kaxhin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57. 「儒敎의 傳統과 近代 韓國의 開化」(Confucian Tradition and Enlightenment in Modern Korea), G. D. Tyagay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58. 「儒敎의 人本主義에 관하여」(On the Confucian Humanism), L. Myalle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59. 「儒敎의 範疇」(Some Categories of Confucianism ; A Methodological Aspect), V. F. Feoktistov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60. 「中國史를 통해 본 儒敎」(Confucianism in the History of China), V. N. Nikiforov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61. 「綜合要素로서의 儒敎」(Confucianism as a Synthetic Factor), M. L. Titarenko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62. 「한 史家의 儒敎의 理想과 正史의 客觀性問題」(The Confucian Vision of a Historian and the Objectivity of a Standard History), Y. L. Krol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63. 「儒敎와 러시아社會의 正義」(Confucianism and the Justice of the Russian Society), V. S.

- Kuznetsov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 64. 「러시아 文化속의 孔子」(Confucius in the Russian Culture), L. S. Pereimov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 65. 「李栗谷의 四端七情論」(Yi Yulgok on the Four Beginnings and the Seven Emotions), Julia Ching (캐나다), De Bary교수의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에 收錄.
- # 66. 「朝鮮初期 異端思想 배척론」(Reject the False and Uphold the Straight : Attitudes Toward Heterodox Thought in Early Yi Korea), Martina Deuchler (스위스), De Bary교수의 前 揭書에 收錄.
- # 67. 「李滉과 儒教」(Yi Hwang and Confucianism), V. G. Burov (소련),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
- # 68. 「17세기 儒教와 기독교 사이의 國際文化 交流」(The Interchange of International Culture between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in the 17th Century), Thomas H. Kang (美國), 90年 第12次 大會에서 發表, 『退溪學報』 제68집 (1990)에 收錄.